2.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전 빙하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직후 옛사람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산 지탑리 등 여러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과 돌보습, 빨갱이 등의 농기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초보적 수준의 농경이 시작되었다.
 - ② 정착 생활을 하며 개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 ③ 집의 형태는 막집에서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으며, 그들이 남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
 - ④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고, 조가비나 뼈, 뿔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다.

답 3

- ‘약 1만년전’이라는 말은 신석기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의 것이 아닌 설명을 찾으려면 된다.
- ③은 이것저것 섞어서 지문을 만든 것이다. 지상가옥으로 바뀐 것은 청동기 시대의 말이다. 또한 지문 뒷 부분은 ‘강가나 바닷가’말은 신석기의 내용이기에 대충 본다면 아마 답을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3. 고조선의 성립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풍백, 우사, 운사 등을 두어 바람, 비, 구름 등 농경과 관계되는 것을 주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②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여고동시(與高同時)’로 기록되어 있다.
- ④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이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이 있다.

답 4

단군신화 수록문헌은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일연, 고려 충렬왕7년) :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기록 [고기]를 인용하여 기이편에서 서술하였다.

제왕운기(이승휴, 고려 충렬왕 13년), 세종실록지리지(조선 단종), 응제시주(권람, 조선세조), 동국여지승람(노사신, 조선성종), 신증동국여지승람(이행, 조선중종)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이규보, 고려 고종)은 53권 13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동명왕편>은 해모수를 주인공으로 삼아 동명왕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을 노래하고, 동명왕의 출생·시련·투쟁·승리를 영웅의 일생에 맞게 다루고, 끝으로 유리를 등장시켜 삼대의 행적을 두루 보여준 영웅서사시이다. 단군의 이야기는 여기에 없다.

4. 다음 글이 가리키고 있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東夷)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탁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다섯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았다.

- ① 1세기 초부터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 ② 10월에는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 ③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였으며,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국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답2

박스에 제시된 글은 부여국의 이야기이다. ②의 내용은 고구려의 내용이다.

중국 측의 기록을 볼 때 부여는 고구려와 달리 상당히 좋게 평을 하였다. 그 이유는 부여는 중국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고구려는 대립의 관계였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여 근엄하고 후덕하여’ 이곳을 보고 부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의 국동대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의 동쪽에 있었던 큰 동굴. 매년 10월 고구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 부인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낸 곳이다.

5. 아래 사상을 주장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많음 안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로다.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 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에도 또한 이와 같도다.

- ① 6두품 출신으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닫고 당으로의 유학을 포기하였다.
-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③ 실천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시하였다.
- ④ 당의 삼장법사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웠다.

답 2

제시된 내용은 의상이다. 의상은 신라 중대의 인물이고, 의상은 668년 지엄이 입적하기 3개월 전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스승의 인가를 받고 670년 귀국했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의 귀국 동기는 당 고종의 신라 침공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신라로 돌아온 후 적극적인 교화활동을 펼쳤다. 당에서 귀국 직후 낙산사(洛山寺)에서 <백화도량발원문>을 지어 관세음보살에 기도하고 그를 친견(親見)했다고 한다. 그후 전국을 유람하다가 676년 태백산에 화엄의 근본도량이 된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한 것을 비롯해 많은 사찰을 세우고 각처에서 교화활동을 폈다.

- ① 원효의 일체유심조의 뜻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것이다. 원효가 의상과 함께 백제의 옛 땅을 거쳐 바닷길로 중국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물어 무덤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 원효는 너무 놀랍고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하였고, 그 순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6. 다음 자료와 연관된 왕의 연호로 가장 옳은 것은?

금관국주 김구해가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 『삼국사기』

- ① 태화(太和)
- ② 인평(仁平)
- ③ 건복(建福)
- ④ 건원(建元)

답4

금관국주 김구해가 투항을 하였다는 이야기로 보아 금관가야의 멸망을 말한다. 이는 신라 법흥왕 때의 사건이다. (532년) 연호는 '건원'이다.

- ① 태화 : 진덕여왕
- ② 인평 : 선덕여왕
- ③ 건복 : 진평왕

참고)

고구려 광개토왕 '영락'이다.

신라 진흥왕 '개국'

7. 통일신라시대에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에게 지급된 관모전답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였다.
- ② 가호는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 ③ 소나 말의 개체 수는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의 수량도 기록하였다.
- ④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두었다가 3년마다 촌 단위로 다시 작성하였다.

답 1

① 지문의 말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언뜻 보면 하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다. 관리에게 지급한 것은 관모전답이 아니고 '내시령답'이다.

'관모전답' 역시 신라 촌락문서(신라장적 또는 민정문서)의 조사대상이었다.

앞의 부분의 말을 신경을 안 쓰고 뒷 부분인 '조사대상'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간부 시험문제 중 이런식의 문제가 종종 등장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관모전답은 '관(官)이 계획한 전답' '관이 설치한 전답'이라는 뜻으로 보거나 '관에 계획된 전답' 즉 '관의 몫으로 설치된 전답'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관모전답(官謨田畝)은 국가에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한 전답(官謨田·官謨畝)으로, 관청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8. 7세기 신라인의 의식과 민족융합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인들의 '삼한일통'의식은 일통의 범주와 대상에서 고구려를 배제한 것이다.
- ② 문무왕은 백제 유민에게 본국의 지위에 따라 신라의 관직과 관등을 주었다.
- ③ 통일 직후에는 백제·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9서당에 편성하였다.
- ④ 신문왕은 안승을 보덕국왕에 봉하고,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켰다.

답 1

- ① 고구려를 배제한 것은 없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신라의 중앙군 9서당은 삼국통일 이전인 진평왕 때 녹금서당(신라인)·자금서당(신라인) 등 2개의 서당이 조직되었는데, 통일 이후 문무왕때 백금서당(백제인)·비금서당(신라인)이 설치되고, 신문왕 때 황금서당(黃衿誓幢, 고구려인)·흑금서당(말갈인, 실상은 동예인)·벽금서당(碧衿誓幢, 보덕국인)·적금서당(赤衿誓幢, 보덕국인)과 청금서당(백제인)이 추가되어 9서당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9서당'의 제도만 보더라도 고구려인을 '황금서당'이라 하여 신라의 중앙군에 합류하여 '삼한 일통'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9. 통일신라의 상대등과 시중(중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대의 시중(중시)은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가 행정의 실무 전반을 총괄했다.
- ② 하대의 시중은 화백회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권력이 약화되었다.
- ③ 중대의 상대등은 국왕을 견제하고 귀족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였다.
- ④ 하대의 상대등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인식되었다.

답3

신라 중대는 왕권이 강하였고 하대로 가면서 약하게 된다. 중대에는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강하였고,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등은 그 힘이 약하였다. 또한 우리가 역사책에서 말하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삼국사기'의 구분이다. 이는 신라왕의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신라 중대에 상대등은 집사부의 시중에게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 귀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였다.

* 신라의 시대구분 (삼국사기 기준)

상대 : 성골이 왕을 차지,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중대 : 진골 무열계, 무열부터 혜공까지

하대 : 진골 내물계, 선덕부터 경순까지

10.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의 상경은 당의 수도 장안성을 본떠 건설되었다.
- ② 정효 공주묘는 당과 고구려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이다.
- ③ 정혜 공주묘는 고구려 고분의 모줄임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굴식 돌방무덤이다.
- ④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영광탑은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발해 석탑이다.

답 4

④ 발해의 영광탑은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이다.

영광탑(靈光塔)은 장백진(長白鎭) 서북쪽 교외의 탑산(塔山) 서남단의 평탄한 대지 위에 있다.

벽돌로 축조한 누각형태의 공심방탑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방향은 200°이다.

영광탑은 무덤바깥길·무덤안길[甬道]·묘실[地宮]·탑신과 탑찰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11. 다음 삼국시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광개토대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 나. 백제 멸망 이후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 다.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을,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라. 지증왕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순장을 금지시켰다.
- 마. 문자왕 때는 부여를 복속시켰으며,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4

모두가 옳은 지문이다.

가)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벌이는 사이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린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이미 항복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이어 신라를 공격하고 고구려에 맞서자, 400년에 5만의 군대를 보내 백제·왜 연합군을 몰아내고, 신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나)서기 660년 7월 18일에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新羅)·당(唐)의 연합군에게 항복하였다. 이후 백제사람들의 부흥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점차 흑치상지(黑齒常之)와 복신(福信)이 응거한 임존성(任存城)과 도침(道琛)이 이끄는 주류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세력이 통합되었다.

다) 고구려는 600년(영양왕 11년) 태학박사(太學博士) 이문진(李文眞)에게 명하여 《유기(留記)》 1백 권을 재편하여 《신집(新集)》 5권을 만들게 했다.

백제는 근초고왕때 375년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
신라는 진흥왕때 545년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라) 순장이란 살아있는 노비를 주인이 죽으면 같이 매장하던 제도이었다.

마) 494년 부여의 왕이 처자를 데리고 고구려에 항복하여 부여를 복속시켰다. 이로써 고구려 최대의 영토를 자랑하게 되었다.

12. 고려시대의 지방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12목에 목사를 파견하였다.
- ② 5도의 장관으로는 안찰사, 양계의 장관으로는 방어사가 각각 파견되었다.
- ③ 3경은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을 가리켰으나, 이후에는 동경 대신 남경이 들어갔다.
- ④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더 많았다.

답 2

② 양계의 장관은 방어사가 아니고 병마사이다.

‘방어사’란 고려와 조선에 지방관직으로 각도에 배속되어 요지(要地)를 지키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이품의 벼슬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다음의 직위(職位)이다.

④ 중앙(서울)의 힘이 미치는 정도를 조선과 비교해 볼 때 고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과거시행으로 관리를 많이 선발함으로써 작은 군현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어 속현이 사라지게 된다. 속현의 소멸은 중앙의 통치력이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13. 다음은 어느 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전시과를 시행한 왕과 전시과의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 전시과는 18등급으로 나누었지만 제18과 아래에 따로 한외과(限外科)를 두어 전지 17결을 지급하였으며, 이전에 왕실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 ① 경종 - 시정전시과
- ② 목종 - 개정전시과
- ③ 문종 - 경정전시과
- ④ 목종 - 경정전시과

답 2

시정전시과 경종 976	개정전시과 목종 998	경정전시과 문종 1076
관품+인품 모두 고려 전직 현직 불문	전현직에게 관품만 고려 인품의 요소가 배제된 <u>오로지 관직의 고하에</u>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분급 한외과 등 18등급에 따라 170결에서 17결을 지급	경기지방에 제한 문관우대 현직관리만 지급 한외과 폐지

14. 다음 고려 후기 각 왕대의 개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선왕은 사림원을 통해 개혁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② 충숙왕은 찰리변위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③ 충혜왕은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 ④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 재정 확보 및 민생 안정을 꾀하였다.

답 3

정치도감은 충혜왕이 아니라 충목왕때 이다.

* 원간섭기의 개혁기구

충렬왕	전민변정도감	고려 후기 무렵 토지와 노비에 관한 행정을 정비하기 위해
충선왕	사림원	정방폐지, 인사행정관할, 개혁정치의 핵심적 역할, 재정제도 개혁 과거급제자를 기용하였고 이승휴 기용함, 신진관료 등장
충숙왕	찰리변위도감	부정부패한 사심과 제도 폐지
충목왕	정치도감	원나라 순제로부터 개혁에 대한 명을 받아 정치도감 만들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신돈을 기용하여 노비와 토지를 정비하였다.
창왕	급전도감	구세력의 경제기반 박탈, 과전법 시행기구역할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신이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요, 실은 창국(創國)의 신적(神迹)이라, 이를 서술해 두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都)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① 동명왕과 관련한 기록은 『구삼국사』에 전해 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 ②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생략한 내용을 시로 서술하여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
- ③ 무신집권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 ④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성인의 도’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였다.

답4

천하에 알리고자 만든 것이 아니고 후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 중심의 역사사관을 탈피하고자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후대에 고려의 자부심을 전수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도전은 궁궐의 전당과 도성의 성문에 유교적 윤리덕목과 오행사상이 담긴 이름을 지었다.
- ② 건국초기에 종루, 이현, 칠패 등을 조성하여 상업도시로 정비하였다.
- ③ 수도 한양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강과 연결되어 수운과 교통에 편리하였다.
- ④ 왕실 조상의 신주를 모신 종묘,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을 궁궐의 좌우에 건설하였다.

답 2

칠패는 어영청의 7번째 순찰 구역이자 경찰기능의 순청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칠패는 조선 후기 서울에 있던 시장의 하나이고, 지금의 남대문시장의 전신으로, 서소문(일명 소의문) 밖에 있었다.

17. 다음의 지문과 같은 정책을 편 왕의 업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재상중심의 정치운영을 국왕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나.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①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 ②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한 제도인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 ③ 억울하게 공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 ④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답 4

박스안의 지문은 조선 태종(이방원)의 업적이다.

가.에 대한 설명은 6조 직계제를 말하고 이는 6조의 각부 장관이 의정부(3정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결제함으로써 국정을 국왕중심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국왕의 입장에서 업무가 많아 피곤하겠지만 모든 소상한 사항을 국왕이 직접 장악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①②③은 모두 태종의 업적이다.

④는 조선 세종때의 일이다.

19. 조선전기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사례, 향음주례 등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②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우 건립이 활발해졌다.
- ③ 현량과를 통해 재야에서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 ④ 성종 때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양 관직에 등용되어 주로 3사와 전랑직에서 활동하였다.

답 2

사우의 건립이 활발해진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물론 조선전기에도 문중의식을 고양하는 취지에서 문중 서원이나 사우 건립도 있었다. 이 문제의 중심은 ‘활발’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풀어야 된다.

조선 전기의 사림은 그다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없었다. 중기 이후로 사림이 정치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서원이나 사우는 16세기 이후로 활발하였다.

20. 아래의 지문과 관계있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良知)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仁)이라고도 한다.

- ①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왕수인의 친민설(親民說)을 적극 지지하였다.
- ③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하곡(霞谷)을 호로 하고 있다.
- ④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일반 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답 1

지문은 성리학을 비판한 양명학이다. 보가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양지’라고 있다 이 단어를 보고 양명학인 것을 알았다. ①에서 틀린 부분은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화도이다.

*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의 학문들은 양명학, 서학, 실학, 북학, 동학이다. 전통적 성리학은 고리타분하고 현실적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이러한 학자들은 성리학에 대해 반기를 들고 위에 설명한 학문들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양명학의 연구는 재야의 소론 계열의 학자들, 불우한 종친 출신의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였다. 지행합일설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여 개성, 서울, 충청지방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양명학파를 ‘강화학파’라고도 한다.

21. 조선전기 농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밭에서 조, 콩, 보리의 2년 3작이 이루어졌다.
- ②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상경이 가능해졌다.
- ③ 하천을 막아 보를 쌓는 등 수리시설이 개선되었고, 수차를 이용하여 저수지물을 논에 관개하는 기술도 개선되었다.
- ④ 상업적 농업이 성행하였으며, 면화, 고추, 호박, 감자 등의 상품작물도 재배하였다.

답 ①

물음은 조선전기이다. ④는 조선 후기이다.

* 조선 전기

-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거의 소멸되었다.
- 농서는 농서직설(세종)을 정초가 씀, 농부의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현존 최고의 농서이다. 모내기법, 이앙법이 소개 되었다.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직파법을 권장함. 이유는 모내기법을 하려면 논에 물을 질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수지가 부족하였다.
- 금양잡록 (성종) 강희맹이 씀, 경기도 금양(시흥)지방의 농민들의 경험담을 썼음,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만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선 후기

- 농가집성(인조~효종) 신숙이 씀
- 색경 (숙종) 박세당
- 산림경제 (숙종) 홍만선, 소백과사전 형식
- 과농소초 (정조) 박지원, 임원경제지 (순조) 서유구 백과사전형식
- 논농사 기술발달 : 이앙법의 보급으로 1인당 경작면적 5배 증가함, 단위면적당 노동력 80 퍼센트 감소
- 밭농사 기술의 발달 : 건종법(고랑에 씨를 뿌림)
- 도조법으로 풍년 흉년 상관없이 수확의 3분의 1을 지주에게 바침, 정액지대임
- 18세기 이후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 활발함

22. 조선전기 상업의 모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물가치가 있는 무명을 화폐대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화(布貨)라고 불렀다.
- ② 전라도 농민들이 생산품을 들고 읍에 나와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③ 객주와 여각이 나타나고 거래를 붙이는 거간도 생겨났다.
- ④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시전이 가장 번성하였다.

답 ③

③ 은 조선 후기때 이다.

① 화폐 대용으로 사용으로 포화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성리학적 경제관념이 지배적이어서 모든 것을 아껴쓰고 망가지면 고쳐쓰는 것이 일반적이였다. 따라서 시장의 발달도 미약하였고 화폐의 유통역시 부진하여 화폐대용으로 '쌀' 또는 '포'를 많이 사용하였다.

* 조선 후기의 어용상인

- 공인 : 대동법 실시하면서 생김
- 시전상인 : 국가나 왕실에 물건을 상납하고, 독점판매권을 얻음.
- 육의전 : 6개 물품이다. 어물, 저포, 면포, 종이, 비단, 명주 취급하였고, 정조 신해통공때에도 그대로 특권(금난전권) 유지함

* 조선 후기의 사상

- 객주 : 지방의 도시에서 금융업, 숙박업을 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국제무역도 담당함
- 여각 : 객주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고, 숙박업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
- 경강상인 : 한강을 근거지로 삼아 서남 해안을 누비며 소금, 미곡, 어물 등 운송 판매함
- 송상 : 개성이 본거지이다. 인삼을 주로 재배하고 판매함
- 중도아 : 일종의 중간도매상으로 서울 근처에서 활동함. 송파, 칠패(남대문시장), 이현(동대문시장), 누원의 시장에서 활동

23. 다음 지문에 보이는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양수(歐陽脩)의 「붕당론(朋黨論)」이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는 정치에서 붕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붕당을 공도(公道)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의 ‘군자(君子)의 당’과 개인적 이익의 도모를 일삼는 ‘소인(小人)의 당’으로 구분했다.

- ① 당파를 초월하여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였다.
- ② 붕당정치는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보장하였다.
- ③ 학문과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과 이념을 달리하는 붕당이 형성되어 서로 경쟁하였다.
- ④ 각 붕당은 서원 등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세력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었다.

답①

제시문은 붕당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①은 영조때 완론탕평책의 설명이다. 이는 구양수의 붕당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러한 붕당정치를 극복하여 당파싸움을 막아보자고 한 것이므로 탕평책의 설명이라 하겠다.

- 1 단계 : 이조전랑직의 문제로 동인과 서인의 붕당
- 2 단계 : 정여립 모반사건의 계기로 신하 ‘정철’의 처벌을 두고 복인(조식)과 남인(이항) 갈라짐
- 3 단계 : 광해군의 국왕 옹립의 문제로 대북파와 소북파 갈라짐
- 4 단계 : 송시열의 처벌 문제로 청남과 탁남
- 5 단계 : 경신환국 이후 권력 다툼 노론(송시열)과 소론(윤증)
- 6 단계 :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시파와 벽파

④ 서원은 당파싸움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24. 조선후기의 오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②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의 순서로 완성되었다.
 - ③ 수어청은 북한산성에 근거지를 두었다.
 - ④ 훈련도감에서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참고하여 훈련하였다.

답 ③

③의 수어청은 북한산성이 아니라 남한산성이다.

- * 5군영 : 서인 정치의 군사적 기반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설립된 부대이다. 일시에 한꺼번에 5개의 부대가 생긴 것이 아니다. 즉 임기응변적이다.
- 훈련도감(1593 선조) : 삼수병구성(포수, 사수, 살수), 직업군인이다. 당시 유성룡이 건의함
- 어영청 (1623 인조) : 북벌을 담당함
- 총융청 (1624 인조) : 이괄의 난을 계기로 북한산성을 수비함
- 수어청 (1626 인조) : 남한산성을 담당
- 금위영 (1682 숙종) : 수도 한성을 담당

참고)

- * 훈련도감에서 삼수병 구성 : 포수(대포), 사수(활쏘기), 살수(창과 검)
- * 암기법 : 훈련하고 어촌에서 수금해라 !

25. 아래의 사료와 관계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명분을 중히 여겼다. 양반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끼고 편하게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웃기를 종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 중에서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① 홍대용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양반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정약용은 남인 출신으로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다.
- ③ 홍대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 ④ 정약용은 임금도 여러 사람에 의해 추대되었으므로 임금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답 ③

제시문은 양반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는 중농학파의 이익, 정약용, 홍대용 등과 중상학파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 일부학자이다. 이들은 양반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비생산성을 비판을 하였지만 한계는 전면적 철폐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그들 역시 신분이 양반의 후손이고 당시의 사농공상의 신분체계의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문항에 홍대용과 정약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박스 안에 내용은 홍대용의 내용이다.

* 홍대용 (호는 담헌) 1731(영조 7)~1783(정조 7).

- 균전제 (임하경륜) 문벌제도 폐지, 기술혁신, 성리학의 극복은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
- 지전설 (의산문답) '지구는 둥글니까? 네모입니까?' 허자와 실용의 문답
- 저서 : 담헌서 안에 임하경륜, 의산문답, 주해수용(기하학을 다루었고 수학책)

26. 조선 정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장각은 창덕궁에 건설되었으며, 열고관, 개유와, 서고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 ② 채색 지도 모음집인 『해동지도』를 편찬하였다.
- ③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 ④ 통치 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답②

* 해동지도는 정조 때의 지도가 아니고 영조 때의 지도이다.

1750년대(영조 26)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 지도모음이다. 규격은 47.0×30.5cm이고, 총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 출제의 포인트 :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은 자주 구분하여 물어본다. 꼭 시험장 가기 전에 두 왕의 업적을 구분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 정조

조선 제22대 왕. 재위 1777~1800년. 이름은 산(禔).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영조의 손자이고,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혜경궁 홍씨, 외할아버지는 홍봉한(동국문헌비고라는 한국학 백과사전을 쓴 사람)

- 당시의 유명한 신하 : 정약용(당시 형조참의), 채재공(당시 좌의정), 홍국영(사도세자 한을 풀기위해서 정조가 악역을 담당하게 함)
- 서열의 차별 완화 방책으로 규장각 검서관(지금의 서울대 도서관장)에 박제가 임명
- 초계문신제 : 정조가 스승의 입장에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신하들에게 재교육함
- 편찬 : 대전통편, 추관지(형벌 업무), 동문회고(외교문서 정리), 탁지지(호조 업무), 무예도보통지(병서)

27. 다음의 지문과 같은 내용이 보이는 시기의 왕이 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병진자(丙辰字) 등을 주로 하였고, 이를 통해 『효행록』, 『충통등록』, 『의방유취』 등을 편찬하였다.

- ① 사형수에 대한 복심제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②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진 여민락을 만들었다.
- ③ 공법을 제정할 때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찬부를 물었다.
- ④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우리의 통사인 『동국통감』 편찬을 완료했다.

답 ④

④ 성종 때의 것. 동문선은 1478년(성종 9) 성종의 명으로 서거정(徐居正)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이다. 또한 동국통감은 1485년(성종 16)에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고 고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사서

박스 안에 제시문은 세종 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비롯 많은 활자판을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사 시험에서 빈번히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하다. 다음은 활자의 순서이다. 시험은 재질과 시기를 알아두어야 함

- 계미자 (동) 태종 1403
- 경자자 (동) 세종 1420
- 갑인자 (동) 세종 1434
- 병인자 (남) 세종 1436
- 경오자 (동) 세종 1450
- 갑진자 (동) 성종 1484
- 병자자 (동) 중종 1516
- 훈련도감자 (나무) 선조 말 무렵
- 임진자 (동) 영조 1772
- 정유자 (동) 정조 1777
- 한구자 (동) 정조 1782
- 생생자 (나무) 정조 1792
- 정리자 (동) 정조 1795
- 춘추강자 (철) 정조 1797

28. 다음의 내용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p>1. 요순(堯舜)의 법을 행할 것. :</p> <p>6.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시킬 것. :</p> <p>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9. 사전(私田)을 혁파할 것. :</p> <p>11.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p> <p>13. 다른 나라에 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p> <p style="text-align: right;">『한성신보(漢城新報)』 1900년 10월 8일</p>
--

- ①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대한자강회월보』를 간행하였다.
- ②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의 종교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 ③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의병들에게 현대적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을 가졌다.

답 ④

제시문은 13개조를 된 것을 보고 활빈당의 대한사민논설 13조의 내용이구나 하고 알았다. 활빈당의 활동은 1900에서 1906년 까지 활동함 이들의 이름은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의 뜻으로 주로 동학농민운동의 잔여세력과 지방의 무장민중집단이 통합하여 생겨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17세기 초반 허균에 홍길동전에도 그 이름은 등장한다. 그러나 주로 1900년 충청남도 일대에서 시작하여 남한 각지에서 반봉건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들고 봉기했던 무장민중집단을 말하며, 활동의 강령으로 13조를 내걸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진 양반 지주를 습격하여 그 물품들을 일반 서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의적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 ① 대한자강회
- ② 영학당
- ③ 간도의 독립운동 단체 '경학사'에 대한 것이다. 경학사⇒부민단(1912)⇒한족회(1919)⇒서로군정서(1919)의 발전이 있었다. 또한 이들이 만든 신흥강습소⇒신흥중학교(1913), ⇒신흥무관학교(1919)의 단계를 거쳤다.

29. 병인양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프랑스군은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여 행궁과 외규장각 등을 불태웠다.
- ② 프랑스군 퇴각 직후 대원군은 서양과의 타협을 반대하는 척화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다.
- ③ 프랑스군은 초지진을 초토화시킨 뒤 정족산성을 공격해 조선군의 수자기를 약탈했다.
- ④ 병인양요에 분노한 대원군은 베르뇌 등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천 여명을 처형했다.

답 ①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한 사건. | 역사적 배경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한다. 1866년 초에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려 프랑스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 수 천 명을 학살하였다. 이 박해 때 프랑스선교사는 12명 중 9명이 잡혀 처형되었으며 천주교 신자 3명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3명 중, 리델 (Ridel)이 중국으로 탈출해 주종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Roze, P.G)에게 박해 소식을 알리면서 보복 원정을 촉구했다. 이에 로즈가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침략함. 이때 강화도의 외규장각도서와 의궤를 훔쳐갔다.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

- ② 척화비는 병인양요때 비문은 작성하였으나 전국 방방곡곡에 척화비를 세운 것은 신미양요 이후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무렵까지이다.
- ③ 신미양요 설명
- ④ 프랑스 신부 베르뇌와 신부 처형은 병인양요 이전인 병인박해의 내용이다. 병인박해가 있어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이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

30. 천주교가 전래됨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주문모 신부 입국
나. 안정복 『천학문답』 작성
다.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
라. 김대건 신부 처형
마. 황사영 백서 사건 |
|--|

- ① 다 - 가 - 나 - 라 - 마
- ② 가 - 나 - 다 - 마 - 라
- ③ 나 - 다 - 가 - 마 - 라
- ④ 가 - 나 - 다 - 라 - 마

답 ③

가) 주문모(1752년 ~ 1801년 5월 31일) 사제는 조선에서 순교한 중국인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이다.

나) 안정복은 그의 스승 이익과 함께 천주교(서학)를 배격하였다. 안정복은 주자학에 능통하였으며 1785 정조9년 추조적발사건이후에 천학교, 천학문답을 만들어서 천주교를 배척하였다.

* 참고) 추조적발사건 1785(정조 9)년에 천주교인인 이벽(李穡), 이승훈(李承薰), 정약용(丁若鏞), 권철신(權哲身) 등이 역관 김범우(金範禹)의 집에 모여 집회를 갖다가 형조(刑曹)의 관원에게 적발된 사건

다) 윤지충 1759(영조 35)~1791(정조 15). 초기 천주교회 순교자. 내용 세례명 바오로. 전라북도 진산(지금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속함)

라) 김대건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면천군 범서면 솔피마을(송산리, 현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남. 1846년 9월 16일 참수형을 당하였다.

마) 황사영 백서(黃嗣永帛書)는 조선에서,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 때 기독교인 황사영이 중국 로마 가톨릭교회 북경교구의 주교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는 조선교회의 전말보고와 그 대책을 흰 비단에 적은 밀서(密書)이다. 그는 참수형도 아니고 능지처참형을 받은 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가마골 홍복산 자락 아래 매장되었다.

암기법 : 안윤주황대

안(안정복) 윤(지충) 주(주문모) 황(황사영) 대(김대건)

」

31. 조선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신정변 실패로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고 배상금 10 만원을 지불했다.
- ② 1차 갑오개혁 때 방곡령 반포를 금지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했다.
- ③ 독립협회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이권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 ④ 「대한국 국제」는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선포된 것이다.

답 ③

1896년의 독립협회는 외국의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여기서 한계점은 러시아에 대한 침탈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일본이나 미국의 침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서재필은 1894년 갑신정변의 주된 인물이었으며, 또한 일본의 도움으로 정변에 가담한 인물이었기에 서재필을 따르는 진보세력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윤치호는 일본 수상을 지낸 이토 우히로부미가 1898년 8월 무렵 관광을 명분삼아 조선을 정탐하러 왔을 때 독립문이 그려진 은다경(銀茶鏡)은 다 경을 선물하면서 환대하였다고 한다. 이 점은 독립협회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독립협회는 그 칼끝을 러시아에만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절영도 조차요구 저지 : 러시아는 저탄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의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자 독립협회는 이를 막았다.
-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군사교관 추방

32.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의 의병전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돌석·김수민·홍범도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많이 나왔다.
- ② 서울진공작전은 승전에도 불구하고 총대장 이인영의 부친상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다.
- ③ 강화 분견대 등 해산 군인들의 의병 가담은 의병의 사기와 전투력을 크게 높여주었다.
- ④ 이인영은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 전쟁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통문을 보냈다.

답③

서울진공작전은 승전하지 못하였다.

1907년 12월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였는데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로 하여 대략 1만명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에 '조선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908년 서울진공작전은 1월에 작전을 시작하여 군사장 허위의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당도하였으나 일본군의 저지로 진군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영국산 케틀링 기관포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일본군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여기서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다"라고 하며 상을 치르러 가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많은 피해를 내고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퇴각을 하였다.

1909년 9월에 일본은 의병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한대토벌작전을 감행하여 잔존하던 의병을 닥치는 대로 잔혹하게 죽였다.(전라도 지방에 의병이 피해가 극심) 훗날 잔존한 의병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합류하였다.

33. 다음 서적과 저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① 『말의 소리』 - 이봉운
- ② 『신정국문』 - 유길준
- ③ 『조선문전』 - 지식영
- ④ 『국어문법』 - 주시경

답④

① 말의소리 - 주시경(周時經)이 지은 문법서. | 내용 1권. 석인본.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음의 성질, 자음·모음의 분류와 배열, 자음접변, 자음·모음의 결합, 음절, 자음의 중화(中和), 운소(韻素), 그리고 습관음(習慣音)에 대한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이봉운 : 조선 말기의 국어학자. | 1897년(광무 1) <국문정리 國文整理>를 펴냈다. 일본인 사카이 에키타로오[境益太郎]와 함께 <단어연어일화조선 單語連語日話朝傳>이라는 일본어학습서를 펴내기도 했다.

② 신정국문 - 1905년 7월 지식영(池錫永)이 상소하여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문개혁안. | 내용이 문서는 당시 의 학교장 지식영이 상소한 <신정국문>으로 참정대신 심상훈(沈相薰)과 학부대신 민영철(閔泳喆)이 황제에게 올려 1905년 7월 19일에 결재가 내림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다.

③ 조선문전 - 1897~1902년에 유길준(兪吉濬)이 라틴문법의 모형에 따라 저술한 최초의 국어문법서.

④ 국어문법 - 주시경(周時經)이 지은 국어문법서. | 191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했다. 체제는 국판 118면. 내용은 '서(序), 국문의 소리, 기난갈, 짬듬갈, 기갈래의 난틀, 기몸박굼, 기몸험, 기똥박굼, 이온글의 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어문법 朝鮮語文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1911년과 1913년에 다시 펴내기도 하였다.

34.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항초기 일본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었다.
- ②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었다.
- ③ 러시아가 침탈한 대표적인 이권은 압록강·두만강·울릉도 삼림 벌채권과 운산 금광채굴권이었다.
- ④ 일본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철도 부지와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대규모의 토지를 강탈하였다.

답③

러시아는 함경도 경원, 경성 일대 광산 채굴권과 압록강, 울릉도의 삼림 벌채권을 강탈해갔다. 운산 금광채굴권을 강탈한 것은 미국이다.

- ① 조일수호조규부록 : 1876년(고종 13) 8월 24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강화도조약, 1876년 2월 3일)를 보완하기 위해 조인된 조약. 조선 측 대표 강수관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측 대표 이사관 외교대승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일본 화폐유통 허용
- ②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1882년(고종 19)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양국 상인들의 수륙 통상에 대한 규정. | 임오군란 진압을 위한 청군의 주둔을 배경으로 체결되었는데, 조선이 청의 예속국이란 규정의 명시와 함께 청에게 치외법권, 내지통상권, 연안어업권, 청군함의 연안항행권까지 허용한 불평등조약이었다.
- ④ 한일의정서 : 1903년 10월부터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이지용·민영철·이근택을 매수하여 일을 추진시켜 공수동맹의 성격을 띤 밀약이 조인 직전까지 이르렀다.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중립선언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러일전쟁의 발발로 실패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은 단순하게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 동양 대 서양의 싸움이니 조선은 동양의 입장에서 일본을 도와야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조선의 영토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본이 군사적 용도로 마구 잡이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35.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학교장은 조선 사람이어야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작제를 4·6제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가 납부한다!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일본인 지주의 소작료는 주지 말자!

- ① 북벌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
- ②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운동이었다.
- ③ 양기탁에게 국채 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운동이 실패하였다.
- ④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전개된 운동이다.

답 ④

박스안에 제시된 것은 1926년의 6.10만세 운동의 꺾기문이다. 순종의 인산일(장례일)에 거사를 하기로 하였다. 중심인물은 사회주의계의 권오설, 김단야, 이지탁, 인쇄직공 민영식, 이민재, 연희전문의 이병립, 박하균, 중앙고보의 이광호, 경성대학의 이천진, 천도교의 박내원, 권동진 등으로, 이들은 10만장에 달하는 격문을 준비하고, 오전 8시 30분경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날 때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격문을 살포,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했다.

박스안에 첫줄에 보면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이 운동에 사회주의계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데, 당시 민족주의파와 사회주의파의 공동 합작으로 거사를 꾸몄지만 조직 사이의 유대 결여와 민족진영의 조직약화, 노총계 사회주의계열의 사전체포 등으로 일본 경찰에 저지당하여 곧 실패하였다.

- ① 북벌주의라는 말은 다시 전제군주인 왕정을 하자는 의미한다. 여기의 대표적 활동으로는 임병찬(고종의 밀지를 받음)이 있다. 단체는 대한독립의군부 활동은 1910년대에 활동함
- ② 일제강점기의 최대규모의 항일학생운동은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다. 이는 제2의 3.1 운동이라 할 수 있다.
- ③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홍보지 역할을 한 것은 대한매일신보이다. 사장은 영국인 베델이었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은 상태라서 항일운동에 선봉에서 일제를 비판하는 글을 써도 베델을 건들이지 못했다. 일제는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하여 양기탁에게 혐의를 씌워서 신문사를 방해할 가했던 것이다.

36.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창사, 충칭 등 여러 곳으로 이동할 당시 조선총독부가 취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 ② 갑오개혁 때 폐지하였던 태형을 부활하였다.
- ③ 가난한 농민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였다.
- ④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바꾸었다.

답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한 시기는 1932년 이후로 이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공원 거사였다. 1932년 당시에 임시정부 설립 초창기 유명하던 독립운동 인사들은 모두 빠져 나가고 없는 상태였다. 이때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지휘했던 인물은 김구이다. 김구가 만든 애국단 소속 윤봉길이 홍커우공원 거사를 하면서 그 배후에 김구가 있다는 것을 일제는 알았다. 따라서 김구에게 현상금이 걸리고 체포령이 떨어져 상해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한 것이다.

②는 1912년 조선태형령이다.

① 국가총동원법 : 1938년 4월에 공포하여 5월 5일부터 일본·조선·대만·사할린에서 동시에 시행했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조선에서 실시한 목적은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을 강제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가 대륙침략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물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전시통제의 기본법

③ 농촌진흥운동 :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1932년~1940년 사이동안 전개하였던 관제농민운동이었다. 총독부는 당시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소작농 및 농민들의 사회불안 억제와 소작농·농민들의 불만 및 각종 소작쟁의 운동 활성화를 통제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국대륙 침략 전쟁을 앞두고 '황국신민화'정책의 효과적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④ 제3차 조선교육령(第三次朝鮮教育令)은 1938년 8월 공포한 일본의 식민지 교육 정책이다. 황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됐다. 국체 명징 · 내선일체 · 인고 단련이 3대 강령이었는데 천황 숭배를 강화하고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병참기지화를 위한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보통학교(초등학교)를 심상소학교라 하는 등 교명을 일본과 같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일본어 · 일본사 · 수신 · 체육을 강화하며 수업을 일본어로 할 것을 강요하고 국어를 필수과목에서 수의(隨意)과목(선택 과목)으로 바꿔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지향했다.

37.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야 전국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단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 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가. 광복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나. 화북지방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하였다.
다. 4차 개헌 때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여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마. 우리 역사상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였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②

맞는 지문은 라)와 마)이다.

제시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창시기에 발표된 건국이념이다. 1941년 11월 28일에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본이념. | 임시정부는 이미 만주사변 직전에 조소앙(趙素昂)의 제창으로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했다. 삼균제도란 정치·경제·교육에 있어서의 균권·균부·균학을 의미한다.

가) 조선건국동맹의 설명이다. 이는 1940년대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며,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여운형(呂運亨) 등이 조국 광복에 대비하기 위해 비밀리 조직한 단체이다. 훗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됨

나) 화북조선독립동맹 설명이다. 1942년 7월 중국 화북 태항산 지역에서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여 일제 패망 때까지 활동했던 한인 독립운동 단체

다) 4차 개헌 시기에 주석제, 5차 시기에는 주석, 부주석제이다.

38. 다음 발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미·소공동위원회를 지칭)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 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② 신탁통치 반대 운동
- ③ 좌·우 합작 운동
- ④ 6·25전쟁

답 ③

제시문은 이승만의 정읍발언이다. 1946년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이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에서 찬탁과 반탁을 놓고 좌·우세력이 크게 대립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소련측의 주장은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지지세력만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는 주장이었고, 미국측은 '모든 정치세력을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는 주장을 하여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되었다. 여기서 이승만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가다가는 또 나라를 강대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면서 차라리 빨리빨리 단독정부라도 만들어서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시 여운영과 김규식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유는 단독정부 수립은 남북의 분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좌우합작운동은 실패하였다. 실패이유는 1947년7월에 여운형이 자객에게 암살당한다.

39. 다음의 진행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가. 8·15 선언	나. 7·4 남북공동성명
다. 6·23 평화통일선언	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라 - 다 - 가
- ④ 다 - 가 - 라 - 나

답①

- 가) 1970년 8·15해방 제25주년 경축사에서 행한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한(對北韓) 선언
- 나)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 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발표한 것으로 남북한의 상호 내정 불간섭,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한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을 골자로 한다.
- 라) 1989년 9월 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으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남북연합’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0. 다음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포츠담회담 - 카이로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 ② 포츠담회담 - 카이로회담 - 미·소공동위원회 - 모스크바3상회의
- ③ 카이로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포츠담회담 - 미·소공동위원회
- ④ 카이로회담 - 포츠담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 카이로회담 :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루스벨트·처칠·장제스 등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 포츠담회담 : 1945년 7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정상이 포츠담에 모여 제이 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의제로 개최한 회담

* 모스크바3상회의 : 1945년 12월 16~2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소집한 외상회의.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 미소공동위원회 : 1946년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회의이다. 개최 초기부터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제2차 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